



■ 호남선(서대전~목포역) 틸팅열차 '한빛 200' 타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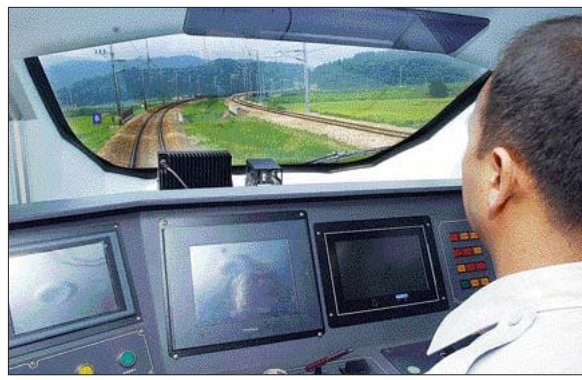
곡선구간도 감속 않고 고속 주행

스케이트 선수처럼 열차 기울여 통과 시속 160km...새마을호보다 32분 빨라

‘한국형 틸팅열차’(TTX·Tilting Train eXpress)가 호남선에 첫 선을 보였다. 서대전~목포역 246.8km 구간을 시범운행한 것이다.

12일 오전 10시42분 대전시 중구 서대전역. ‘한빛 200’이라고 명명된 TTX(총 종량 344t·총 길이 150m) 6량(1량=23.5m)이 미끄러지듯 승강장에 들어섰다. 열차 안은 고속열차(KTX)와 달리 선반이 밀폐식이었다. 가로 40cm·세로 30cm 크기의 모니터엔 속도와 틸팅각(열차 기울기)이 표시됐다.

▲틸팅열차=‘틸팅’(tilting)은 기울인다는 뜻. 틸팅열차는 말 그대로 기울어지는 열차다. 스케이트 선수가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곡선 코스를 지날 때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것처럼 곡선 선로에서 차체가 기울어지도록 설계,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열차를 말한다.



12일 서대전~목포역 호남선 구간에서 첫 시범운행에 들어간 한국형 틸팅열차(TTX)의 기관실(위)과 객실 내부.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최고 8도까지 기울며 달린다.

(70db)보다는 낮았으나 시끄러운 편이었다.

시속 160km(설계속도 200km·최대운행속도 180km)으로 속도를 올린 열차는 출발 2시간35분 후 목포역에 도착했다. 최대속력 140km인 새마을호의 경우 이 구간 운행시간이 3시간6분이나 32분(17%) 단축된 셈이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중·고속급 전기열차의 성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철도연구원은 앞으로 2년 동안 10만 km 시운전을 한 뒤 곡선 구간이 많은 중앙선(서울 청량리~충북 제천) 등에 2010년부터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고속철도Ⅱ가 2년 내 시운전에 들어가는 호남선의 경우, TTX가 운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신소재 틸팅열차시스템연구단’ 이수길(38) 선임연구원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곡선 구간이 많은 우리 지형상 기존선로 고속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건설비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TTX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설계·제작한 것으로 향후 중·단거리용 열차로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중국 수학여행 고등학생 집단 성매매 의혹 ‘충격’

교육청 정밀조사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의 일부가 현지에서 집단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문제가 된 서울시내 해당 학교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선 사실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시 정밀조사를 지시했고 교육청도 직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반을 투입해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확적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인솔교사도 지도감독 소홀로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에 퇴폐업소가 많아 사전 교감회의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며 “설마 이런 일이 터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1학기 때 19개 학교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2학기 때도 일부 학교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연합뉴스

신문기사의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ec.ockr
한국언론진흥위원회 기획관리국

눈병·설사·세균성 이질

광주·전남 학교위생 ‘비상’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보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눈병에 이어 설사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학생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구 K중학교 3학년생 72명이 집단 설사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중 30여 명은 아직까지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통원치료 중이다.

이들 학생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전북 장수군 우석대 연수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콩나물 등을 먹고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광산구 C고등학교 학생 60여 명과 동구 J여고 학생 30여 명도 학교에서 설사를 먹고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이들 학생의 가검물과 급식자재 등을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정모(15)군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돼 나주한국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12일 퇴원했다.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정군은 집에서 점심으로 육개장과 깍두기 등을 먹은 뒤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군을 관리 중인 나주보건소는 감염된 이질균은 ‘슈겔라 손네이’(shigella sonnei)균으로 1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신고를 해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눈병 학생은 광주 13개 초·중·고교 300여 명, 전남 93개교 1천713명으로 2천 명을 넘어섰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307)



전남경찰 기획수사 빛났다

조폭들 난투극 차단 유괴범 조기에 검거 GHB 마약사건 해결

전남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잇따른 강력사건을 말끔히 해결, 전국 경찰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직폭력배 간 유혈 난투극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등학생 유괴사건을 발생 1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칭 ‘물 필로폰’(GHB) 제조·판매책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검거하는 등 강력사건 해결 및 기획수사도 돋보이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 13일 직접 순천경찰서를 방문한다. 유괴범을 검거한 폭력 2팀 최기남 경사를 경위로 1계급 특진시키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순천경찰의 초등학생 유괴 사건 해결은 인질 강도범 검거에 대한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이모(10·초등 4)양의 납치 신고를 받고 경찰서 및 전 지구대에 비상을 걸었다. 경찰은 범인이 어머니에게 4천만 원을 요구한 점

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범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를 대비해 지구대원들은 시내 주요 공중전화 부스에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경찰관들은 평상복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목포경찰도 폭력조직 간의 대규모 유혈사태를 극적으로 막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무인 망원렌즈에 각목·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반대파를 보복 폭행하기 위해 모인 S과 조직원 등 20명을 붙잡았다. 추석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폭의 동향을 꾸준히 관찰, 사전 예방한 것이다.

전남청 마약수사대도 지난 10일 신종마약류인 GHB를 제조해 판매책 2명과 구매자 4명을 구속했다. 인터넷 검색과 한 달여간 잠복 수사 끝에 올린 개개였다.

전남청 김문호 강력계장은 “김남성 청장 부임 이후 전 직원이 혼연일체, 함께 뛰는 역동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 강력사건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여, 대우건설

KCC방도, 시스템방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PC방 도둑 발자국 남겨 ‘덜미’

○자신이 일했던 PC방 벽을 뚫고 금품을 훔친 10대가 현장에 남긴 발자국 때문에 경찰서행.

○12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고모(19)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께 동구 서석동 김모(33)씨의 PC방의 두께 2cm의 석고벽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현금 27만원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280mm나 되는 커다란 신발 자국을 찾아냈고 “지금까지 일했던 종업원 5명 중에서 고씨 발이 제일 컸다”는 주인의 말과 종업원들의 신발을 비교한 끝에 고씨를 검거.

○고씨는 지난 6월경부터 한 달여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방화 기간에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석고 재질인 비상계단 쪽 벽이 약해 쉽게 부술 수 있는 점 등을 알고 범행에 나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0월, 광주의 럭셔리 패션공간이 열립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고급적 쇼룸공간

광주 첨단지구 폭스존 명품 아울렛에서 명품매장의 정주를 모십니다.

문의 : 070-7430-4601-9 기간 2007년 9월 22일까지